

G-Welfare Weekly Report

01

신년사

2019년 '삶의 기본을 누리는 복지' 를 만들어 갑니다.

01 이재명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경기도 전역을 밝게 비추고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길 소망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의 실질적 첫 해인 올해 그 노력들이 하나둘씩 열매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복지' 는 2019년에도 경기도정의 한 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복지예산으로 8조 918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7조 2191억 원에 비해 1조 6996억 원(23.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올해에 도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대하고,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복지 비전은 '삶의 기본을 누리는 복지' 입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파트너로서 경기도 복지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소 및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복지이슈를 발굴하고 현장과의 교감을 통해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경기도 복지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임직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02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밝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구나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풍요롭고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의 혁신으로 보수교육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15만 사회복지사를 대변하기 위해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무국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이 주인인 협회! 회원의 권리장전이 중요한 가치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 및 보수교육 운영에 경사협일번가를 비롯한 다양한 회원의 소리를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찾기 쉬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황금돼지의 해 2019년은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로, 건강한 일터, 동일한 처우를 위한 정책개발을 선결과제로 삼아 협회 회원과 충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협회와 경기복지재단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12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해 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될 경기도 계획이 실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와 재단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싱크탱크 기능과 협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이 함께 한다면 2019년 경기도의 복지는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 김민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위원



대망의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지난해를 거울삼아 새해의 비전을 품고 알차게 시작하는 모습들입니다.

올해는 커뮤니티 케어체계구축,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거버넌스 운영 등 정책현안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만의 고유한 복지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복지계가 보다 협력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첫째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혁신입니다. 경기도는 국가정책적 이슈 이외에도 지역별 복지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일정정도 복지기준선이 제시되었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지 분야별 정책커뮤니티 활성화 등 혁신적 토대를 마련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미래의 복지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입니다. 경기도내 복지현장 종사자는 16,0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최 일선에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역량이

복지서비스 수준을 넘을 순 없는 일하기에 다양한 교육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은 복지서비스 품질경영 지원체계와 맞물려 도내 곳곳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는 도민이 공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현 시점에서 복지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을 비롯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 민-관 친화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경기도 복지가 한층 도약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4 유용대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대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각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한가득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은 매우 분주합니다. 저 역시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좀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에도 경기도민의 복지 발전과 현장을 지원하는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낮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복지 정책 변화의 중심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많은 정책 연구와 사업들이 온전히 도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는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사회복지사 단체(무리들의 수다)를 구성하여 ‘재미에서 흥미를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며 현재와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복지재단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꽃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은 새로운 경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기로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중추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큰 꿈 품으시고 희망찬 한 해로 뜻하는 바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경기복지재단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05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띠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고 다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8년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재단도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민선 7기의 시작과 함께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 역시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재단을 만들고자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9년, 재단은 미션과 비전을 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라는 미션으로 현장과 공감하는 경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협력, 도전, 존중, 책임이라는 핵심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수동적이고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화합과 쌍방향적인 소통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복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의회-재단 간 정책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미래복지 이슈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며, 경기도형 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복지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맞춤형 복지현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필요한 복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대가 원하는 능동적인 변화에 맞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재단이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로, 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육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를 구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현장 지원체계 및 도민중심의 복지정책 연구를 이끌어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에 맞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열린 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청렴도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형태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고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재단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협업할 수 있는 구조와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재단은 보여주시는 기대만큼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 석 범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2019년도 바뀌는 보건·복지제도

기획재정부는 새해를 맞아 2019년 분야별,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그 중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봄

- 우선,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 지급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아동과 임신부 대상의 서비스는 늘고, 의료비 부담은 낮아짐

항 목	세부 내용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월)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 (9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 → 180% • 지원 횟수 및 범위 확대 :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3회, 기존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부분 포함 지원 • 지원 항목 확대 :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18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100%(월 452만원)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 의료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 확대(21~42%→5~20%) •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및 대상 확대 단태아 50→60만원, 다태아 90→100만원,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 소득하위 20%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됨

항 목	세부 내용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25만원→30만원) •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확대(51만개 → 61만개)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월 65만원/월 60시간 기준 *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권역별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확대 2018년 (2개소) → 2019년 下 (8개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자활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이 지급

항 목	세부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기준 중위소득 43 → 44%)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2년 내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시범사업)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금액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원)

-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가 인상되고,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등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

항 목	세부 내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추가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기관 지원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상반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6월부터 *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커뮤니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 돌봄 관련 상담 등을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접수리,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행

항 목	세부 내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두부·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적용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우울증검사 대상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652개→927개)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확대(극희귀질환 51개→89개)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중앙 1개 센터, 지역 10개 센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평가 등 제공
치매안심병원 지정/치매안심병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7 및 별표2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

03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2019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경기도 복지정책

2019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은 총 34건이며, 그 중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과 확대 편성된 사업을 살펴봄

- 새해에는 경기도 3대 무상복지라 불리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
 - 2019년 신설된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6개이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대상과 지급 범위가 확대

〈표〉 신규 추진 및 확대된 경기도 복지 정책

정책	신설 및 달라지는 내용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내 용 : 1인 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 '19년(157,483명) • 내 용 :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무관) • 내 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비 등)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 수행기관 : 도내 치과 병 의원 • 내 용 :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 진료 등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는 조례개정 필요 • 방 법 : 현물지원(학교주관구매제도) • 단 가 : 30만 원(1인당)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원액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1만 원 한도(1인/1일/1식) - 지원방식 :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2019.2월부터)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원액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월 3만 원(1인) - 지원방식 : 교통카드 충전(2019. 2월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도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 생활비 이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年12만원 → 年15만원(3만 원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 원(정액), 건강관리비 월 30만 원(정액), 위로금 월 60만 원(정액), 사망조의금 100만 원(1명당) • 지원시기 : 2019년 1월 ※ 국비 : 월 140여 만 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300여만 원

*별표의 사업은 기존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시행

- 경기도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18.11.13.)를 포함한 6개 조례 제정을 완료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의 절차 이행이 부기로 명시된 바, 개별 조례 제정을 추진 중
- 경기도의 확대된 복지 정책과 선도적인 복지실현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이 필요